

# 우리나라 建築界의 巨擘 金正秀

金正秀 선생은 1919년 10월 평남대동군에서 출생, 한평생을 건축의 學向으로서의 발전과 예술로서의 창작에 몰두하였다.

1941년 경성공업고등학교(서울공대 전신)를 졸업한 후 22세의 나이로 日政時 중앙청 건축직 공무원으로 시작해 7년간 재직하였다. 1948년 三正土建을 설립 건축의 일선에서 활약했으며, 1953년에 李天承 선생과 함께 綜合建築研究所를 창설하여 건축활동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아갔다. 선생은 이처럼 건축의 실무에서 뿐만 아니라 이론과 학문으로서 발전을 위해 대단한 정열과 노력을 기울였다.

1957년 미네소타대학원에서 학문적인 이론과 지식의 깊이를 다졌고, 미국의 선진 건축기술을 연구하였다. 선생은 그동안 실무와 경험은 물론 연구한 지식을 후학들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1961년에 창설된 연세대학교 理工大學 建設工學科 교수로 학계에 몸을 담게 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건축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설계교육에 역점을 두고 후학들을 지도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설계교육방법을 도입하였다. 물론 선생의 교육은 이론과 지식의 교육도 철저하게 습득시켰으나 더욱 인간교육에 깊은 철학을 가졌다.

선생의 연구태도를 엿볼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들면, 華甲이 되기 몇 년전 몸이 불편해서 댁에서 요양을 하면서도 침대옆에 모터전축을 놓고 영어회화테이프를 듣고 있었다. 까닭을 물으니 "이제 여기서 죽으면 할 수 없지만 다시 살아나면 외국에 나가서 새로운 지식을 접해보고 싶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화장실에는 영자신문을 갖다 놓고 읽을 정도였다.

이러한 결과 1982년 노령에 미네소타대학에 연구교수로 가게 됐을 때,



金正秀 博士 (1919~1985)

주위에서 "이제 건강도 좋지 않고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굳이 연구교수로 가려고 하느냐"고 만류했으나 "이제라도 모르는 것을 배우고 아는 것을 틈틈히 해야지요"라고 하면서 컴퓨터도 배워야한다고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타자기를 갖다 놓고 키보드를 치는 연습을 하던 열의는 젊은 교수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선생은 24년간 연세대학교에 재직하면서 건설공학학과장, 건축공학과의장, 산업기술연구소장, 이공대공학부장, 산업대학원장등을 지냈다.

선생은 학회활동에도 열성적이어서, 대한건축학회 이사(10회)·부회장(4회)나 지냈으며, 1972년에 대한건축학회 회장에 선출되어 학회의 발전과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선생이 남겨놓은 대표적인 저서는 「교육건축계획」, 「건축계획학론」이 있으며, 연구논문으로는 「조립식 precast Concrete」, 「理想聚落의 建設방안」, 「

한국의 불교건축에 관한연구」, 「한국내 건축을 위한 태양에너지 개발에 관한 연구」, 「건축법규의 전산화 방안에 관한 연구」등이 있다.

한편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신신백화점, 정선여과과학관, 명동성모병원, 동대문실내스케이트장, 종로 YMCA, 장충체육관, 한일은행, 이화여대강당, 여의도 국회의사당 등이 있다.

선생의 작품은 겸손하면서도 항상 진보적이었으며, 언제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였는데,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당시 첨단건축공법이었던 Curtain Wall 공법을 도입한 것을 비롯해서 조립식 공법의 보급은 물론 새로운 건축기술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선생의 학문과 업적이 높이 평가되어 서울시문화상을 비롯 대한건축회 작품상, 대통령표창등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건축·건설기술사 시험위원, 기술고등고시시험위원, 서울시문화상 심사위원, 서울시 문화재보존위원회에 위촉되었다.

선생은 후학양성과 작품활동에 남다른 정열과 노력으로 임했으며, 인격과 덕이 가득찬 지식을 전수 하였다.

특히 기뻐했을 때마다 "한평생의 원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그 계획에 의해 방향을 정하라. 그리고 성심을 다하여 노력하라"는 생활철학을 역설하였으며 이는 지금도 후학들의 가슴속에 깊이 남아 선생의 자취가 면면히 흐르고 있다.

金正秀 선생은 우리나라 건축계의 개척자요, 거장으로서 우리나라 건축기술 및 건축학의 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남기고 1985년 66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李 璟 會  
<延世大工大 建築工學科 교수>